

‘제10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오늘 개막



21일까지 일산킨텍스 제2전시장 210개 업체서 450여개 부스 마련
지역별 여행콘텐츠·체험행사 풍성
“관광·여행 전문 비즈니스 플랫폼”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KITS)가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7홀에서 열린다.

KITS는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최신 콘텐츠를 소개하고,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국내 대표 관광·여행 전문박람회다.

KITS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KITS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전시산업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국내외 관광업계 정보 제공의 장과 관광객 유치 도모를 위한 비즈니스의 장을 마련해 상호 교류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KITS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별 특색을 살린 여행 콘텐츠와 국제 관광도시 및 국가 홍보, 국내외 관광 콘텐츠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플랫폼, 다양한 여행 관련 체험, K-팝 아이돌 공연, 어린이 캐릭터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보인다.

이번 박람회에는 약 210개 업체 450여개 부스로 진행되며, 참가하는 자치단체 및 기업에는 관광 국제화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바이어 및 국가·도

시와의 상호 협력과 네트워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행사 기간 중에는 ‘관광의 미래, 감성과 로컬에서 답을 찾다!’라는 타이틀 아래 참가기관 및 관련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가 특강이 마련돼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박람회는 10주년을 맞아 일반 참가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는데, 밴드 루시(LUCY) 공연, 핑크퐁과 튜트툰의 댄스파티, 캐리와 친구들 캐릭터 공연, 한복 패션쇼 등을 비롯해 KITS 포토부스와 다양한 이벤트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환경 문제와 생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한국의 다양한 생태관광과 자유롭게 여행하는 세대의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다.

KITS조직위원회 정창수 위원장은 “올해 박람회는 KITS가 지향하는 관광·여행 산업의 전문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인바운드·아웃바운드·인트라바운드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 관광산업박람회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 여름 휴가계획을 세우기 전 일산 킨텍스에서 각 지역별 대표 관광지 및 여행명소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숨겨진 보물 같은 관광지를 발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람회는 사전등록 시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참가 및 참관 문의 : 02-3785-3905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광주상의, FTA 활용·관세환급 실무 교육

22일 지역기업 대표 등 대상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제2강의실에서 지역 기업 대표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활용 및 관세환급 실무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상의에서 운영 중인 FTA 통상진흥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FTA 제도 활용도 제고와 관세 행정 실무 역량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에게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 과정으로 기획돼 높은 실용성이 기대된다.

강의는 관세법인 패스윈의 김현철 관세사가 맡는다.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관세환급 제도의 개요 및 환급 방법 △원산지 결정기준과 판정사례 △원산지

지 관리실무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할 예정으로, 기업의 현장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원산지관리전문가인 정점수가 8점 부여되는 과정으로, 향후 인증수출자 인정을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자율적 원산지 관리능력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 요건을 심사한 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FTA 활용 시 서류 간소화와 통관절차 간편화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 신청은 21일까지 팩스(062-350-5869) 또는 이메일(gj-FTA@daum.net)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문의는 광주FTA통상진흥센터(062-350-5888)로 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광주은행, 퇴직연금 복지 플랫폼 도입

SK엠앤서비스와 업무협약
여행 할인·건강검진 우대

광주은행은 김성준 SK엠앤서비스(주) 대표이사과 임양진 광주은행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 복지 플랫폼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SK엠앤서비스와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 퇴직연금 가입 고객은 ‘광주은행 퇴직연금 고객 전용 베네피아’ 플랫폼을 통해 여행·여가·레저·쇼핑·건강관리·취미 및 자기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 및 서비스를 특별히 우대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주

요 서비스로는 △국내외 여행 할인 △건강검진 우대서비스 △온라인 쇼핑 최저가 보장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플랫폼은 8월부터 광주은행 홈페이지 및 광주와뱅크(APP), 모바일웹뱅킹 등을 통해 사전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등록 후 일주일 뒤에 베네피아 회원 가입 후 본격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광주은행은 이번 플랫폼 도입을 통해 퇴직연금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차별화된 복지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K엠앤서비스에서 운영하는 복지플

랫폼 베네피아는 국내 3700개의 기업 및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복지 플랫폼으로, 약 110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선택적 복지사업 시장 점유율 1위의 복지 플랫폼이다.

임양진 광주은행 신탁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광주은행 퇴직연금을 이용하는 고객님을 위한 부가서비스 확장의 첫걸음”이라며 “향후 양사간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지역 내 연금시장을 선도하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신세계, 초복 맞아 보양식 재료 할인 판매

오는 24일까지 본관 지하 1층
삼계탕·장어·한우·민어 등 다채

광주신세계는 오는 20일 초복을 맞아 18일부터 24일까지 각종 보양식 재료를 할인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에서는 대표적인 보양음식인 민물장어와 바다장어를 기호에 맞게 구매할 수 있다.

여수갯장어 한팩(500g)은 5만8000원으로 1만원 할인되며, 구이와 탕 용도로 손질된 민물장어(1마리)는 1팩을 2만2800원에 선보인다.



복날 대표 음식인 삼계탕 재료도 다양하다. 삼계탕용 생닭은 8900원으로 3000원 더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으며, 황기와 대추 등의 재료 역시 한 자리에서 구

매할 수 있다.

간편하게 복달임 음식을 준비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겨냥해 삼계탕 밀키트(1만4900원)도 마련됐다.

1등급 한우 등심은 100g 당 1만6900원에서 1만3900원으로, 1등급 한우 치마살은 100g 당 1만7900원에서 1만3600원으로 할인 판매한다.

특별한 보양음식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서 탕과 구이용으로 손질된 민어는 한 팩에 1만9800원에 판매되며, 이밖에도 전복과 병어 등 다양한 보양식 재료가 준비됐다.

윤준명 기자



롯데백 광주점, 초복맞이 한우대축제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초복을 맞아 지하1층 행사장에서 한우 전품목을

할인하는 ‘한우 대축제’ 행사를 18일부터 7일동안 진행한다. 먼저 동양축산은 주말 3일간(7/18~20) 한우등심(1+등급, 100g 당) 9900원, 한우사태(100g 당) 2980원에 줄서기 선착순 한정 특가로 판매한다. 녹색한우는 1+등급 한우를 100g당 일별로 한우 등심(7/18, 금) 1만900원, 한우채끝(7/19, 토) 1만1900원, 국거리/불고기(7/20, 일) 3900원에 한정수량 판매한다. 더불어 행사 기간 중 다양한 한우 부위를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하며 당일 한우 10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할인혜택 또한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세탁기·건조기 신제품 출시

세탁 가전 풀 라인업 갖춰

삼성전자는 2025년형 ‘비스포크 AI 세탁기’와 ‘비스포크 AI 건조기’ 신제품을 18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제품은 국내 최대 25kg 용량의 세탁기와 22kg 용량의 건조기로, 공간에 따라 상하·좌우 또는 각각 단독으로 설치할 수 있어 다량의 세탁물을 관리하거나 분리 세탁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적합하다.

새로운 비스포크 AI 세탁기와 건조기는 7형 ‘AI 홈’ 터치스크린을 탑재해 세탁

·건조 코스 등을 편리하게 확인하고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기능도 한층 강화했다. AI 음성비서 빅스비를 지원해 사용자가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다.

비스포크 AI 세탁기는 세탁물의 종류와 무게, 오염도에 따라 최적의 코스로 맞춤 세탁하는 ‘AI 맞춤세탁+’ 기능을 지원한다.

AI가 인식할 수 있는 옷감 종류도 기존 일반·섬세·타월류 3종에서 데님류·아웃도어류까지 총 5종으로 확대됐다.

비스포크 AI 건조기는 의류 재질과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알고리즘으로 맞춤 건조하는 ‘AI 맞춤건조+’ 기능을 갖췄다.

또 ‘하이브리드 히트펌프’ 기술을 탑재해 한층 효율적인 건조 성능을 제공한다. 히터로 열교환기를 빠르게 예열하면서도 저온 제습 기술로 건조기 드럼 내부를 최고 60도 이하로 유지한다.

삼성전자는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상하 결합형 ‘비스포크 AI 원바디’에 이어 분리형 세탁기와 건조기를 출시하며 세탁 가전 풀 라인업을 완성했다.

박소영 기자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진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

